

WHO 담배규제협약 진행현황과 전망

김도훈

KT&G 경영연구소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은 1998년 Brundtland 사무총장 취임직후 역점사업으로 선정되어 1999년부터 다자간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차례의 실무단 회의와 6차례의 국가간 협상회의를 거쳐 지난 5월 19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WHO 연례회의인 제56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담배규제 협약안이 채택되었음.

- 그 동안 강력한 협상성안을 원하는 SEARO, EMRO, AFRO, Pacific Islands, Caribbean 국가들과 기존 무역조치에서의 규제만을 원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번번히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으나, 2003년 내에 협약성안을 완성하기 위한 WHO와 INB(국가간 협상회의) 의장의 강력한 성안추진으로 인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미국, 중국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됨.

본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본 협약과 다른 협약간의 관계, 담배산업의 책임문제,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조치(가격 및 조세조치,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담배제품의 성분규제, 담배제품의 공개에 대한 규제, 담배제품의 포장 및 의장규제, 담배광고·촉진 및 후원규제), 담배 공급 감소를 위한 조치(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규제, 미성년자 판매금지, 담배보조금 철폐), 자원, 유보조항의 여부 등이며,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기존 협약안 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음.

그러나, 협약안에는 여전히 담배 감소를 위한 여러 규제조치들이 해당 당사국들의 재량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권고되고 있어, 향후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 입법 정비시 많은 논쟁이 예견됨.

특히, 본 협약에서는 최초로 담배 제조업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언급되었음

본 담배규제협약은 세계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서, 담배 감소를 위하여 강

력하고 과학적 접근에 근거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협약은 흡연문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각국의 국내법 정비를 위하여 채택된 기존의 거의 20개에 달하는 WHA 결의안과는 달리 협약 당사국들에게 국가간 협력과 국내입법 및 협약 이행 등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음

- 더욱이, 본 협약은 담배 감소를 위하여 현재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당사국들에게 담배규제를 위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음

- 따라서, 협약안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담배 감소 정책들은 향후 국내 담배산업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